

민간 소비 좋다는데, 심리는 '냉랭'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만큼 소비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팽팽 얼어붙은지 오래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었지만 이렇게 지표와 소비심리가 따로노는 이유는 뭘까. 바로 심리지수가 부정적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에 실린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 간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민간소비와 소비심리의 움직임은 큰 흐름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변동

민간소비 증가율 2.8%로 7년 만에 '최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여전히 '비관론' 우세
부정적 뉴스에 주로 민감하게 반응 분석
세월호 사고·메르스 사태때 엇갈린 흐름

폭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민간소비 증가율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3.5%, 2분기 2.8%, 3·4분기 2.5%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평균 증가율은 2.8%로 1년 전 수준(2.6%)보다 0.2%p 확대됐다. 지난 2011년 2.9%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CCSI의 추세는 달랐다. 지난 2017년 지수가 큰 폭 상승하며 장기평균치(100)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점차

내려왔더니 3분기(99.9) 이후 평균치 밑으로 아예 떨어졌다. 4분기에는 97.3으로 더 내려갔다. 지수가 100 이하라는 것은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연평균 CCSI 추이를 보면 2017년 105에서 지난해 103.2로 하락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민간소비와 소비심리는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에는 대체로 동행하지만 때로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5년 1분기~2016년 2분기에도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하락했으나 민간소비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

이는 민간소비의 경우 소비심리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고용상황 등 여러가지 경제 변수들에 영향을 받지만 심리지수는 추가 하락이나 경기 둔화 우려, 자연재해 등 부정적 뉴스에 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CCSI는 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의 주요 지수를 표준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한은이 뉴스 기사에 반영된 불확실성 정도를 측정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비교한 결과 CCSI는 반대로 움직였다.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가면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낮아지면 상승했다.

한은은 "2017년 이후 소비심리가 심리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한 측면을 감안하면 향후 민간 소비가 단기 내엔 둔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의 이진지를 확대와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이 소비의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고용상황 개선 지연, 지역업 현황 부진 등으로 소비심리 부진이 장기화되면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빚, 증가세 둔화에도 GDP의 97%

한은 "누적위험 점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9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으나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은 여전히 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2월)'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자금순환 기준) 증가율은 6.8%로 전년동기(9.0%)대비 2.2%p 하락했다. 2015~2016년 증가율이 1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등으로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불어날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로 1년 전 수준(93.8%)보다 3.1%p 확대됐다. 지난 2010년 1분기(76.1%)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에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것이다.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말 가계빚은 153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둔화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임주불량 증가에 따른 대출 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간 확대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추이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적정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증가율이 최근 몇년간 2~4%대 수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가계부채 증가세는 가파른 셈이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몇년간 가계빚 증가율이 명목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가계빚 증가율은 5%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점차 소득 증가율 수준을 수렴해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산지에서 생산된 설향 딸기 맛보세요

13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논산, 전주 등 유명 딸기 산지에서 수확한 설향 품종의 딸기를 선보이고 있다. 설향 품종의 딸기는 2005년 선보인 국산 품종으로 크기가 크고, 선홍빛 된다. 또한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롯데마트는 논산, 전주 등 유명 산지에서 생산된 설향 딸기 중 개당 210g의 대과만 엄선했다.

지난해 말 은행대출 연체율 0.4%...1년 만에 최저

연체잔액 6조5000억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개선된 결과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60%)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0월

0.08%포인트 오른데 이어 11월에도 0.02%포인트 올랐지만 12월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근 연체율은 두 달 연속 상승한 뒤 분기 말 하락하는 패턴을 지속하고 있다.

12월 연체율은 지난 2017년 12월(0.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아울러 연체기준이 1개월 이상으로 바뀐 2014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12월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

4000억원으로 신규연체 발생액 1조 3000억원을 압도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전월 대비 3조1000억원 감소한 6조5000억원이다.

기업대출의 개선폭이 두드러졌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 대비 0.3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73%로 0.94%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9%로 0.18%포인트 내렸는데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0.08%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하락한 0.18%였고, 가계신용대출 등은 0.08%포인트 내린 0.43%였다.

금융원은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광주전남중기청, 오늘 목포서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현장에 만나볼 수 있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15일 오후 2시부터 목포벤처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금년도 준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지역식재산센터 등이 지원하는 사업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금, 노무, 창업 등 분야별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상담회도 함께 개최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재홍 청장은 "그간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지원정책을 알고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정책 세일즈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목포벤처지원센터 찾아가는 설명회까지 R&D·수출·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지원사업을 연계한 설명회를 총 27회 개최한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